달아나는 선두…2위 경쟁 가열

프로야구…kt 독주 속 뒤쫓는 삼성-LG 자존심 대결
6연승 두산 상승세로 중위권 싸움 '엎치락뒤치락'

프로야구 kt wiz가 고비를 잘 넘기고 선두 자리를 더욱 단단하게 다졌다.

kt는 지난주(7~12일) 6경기 2승 3무 1패를 기록했다. 시즌 60승에도 선착했다.

시즌 60승 선점 팀의 정규리그 우승 확률은 73.3%(30번 중 22번)다.

kt는 12일 기준으로 61승 4무 39패로 2위 삼성 라이온즈(58승 6무 45패), 3위 LG 트윈스(55승 3무 43패)를 각각 4.5경기, 5경기 차로 따돌리고 있다.

kt는 지난 9일 삼성에 7-8로 역전패를 당했지만, 10일 2-2 무승부로 2연패를 막았다. 앞서 4~5일에는 LG에 11-1, 11-0 대승을 거뒀다.

kt의 선두 질주를 막으려다 실패한 삼성과 LG의 2위 대결이 더욱 치열해졌다. kt를 따라잡을 기회를 놓친 삼성과 LG는 2위 자리라도 확고히 다져야 하는 상황이 됐다.

마침 삼성과 LG는 14~15일 2연전을 치른다. 12일 더블헤더 결과로 삼성이 LG를 제치고 3위에서 2위로 올라선 상황이어서 두팀의 자존심 대결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kt는 '복병'과 맞붙을 예정이다. 6연승을 질주 중인 두산 베어스와 14~15일 잠실에서 만난다.

두산은 7위에 머물러 있지만, 최근 6연승을 달리며 심상치 않은 가을 분위기를 타고 있다. 두산이 kt의 선두 질주에 제동을 걸지 주목된다.

두산의 상승세로 중위권 싸움도 치열해졌다.

NC 다이노스와 SSG 랜더스가 kt와 11경기 차로 공동 5위를 달리고 있고, 두산이 NC·SSG를 0.5경기 차로 뒤쫓고 있다.

0.5경기 차이로 3팀이 5위 대결을 벌이는 상황이다.

두산은 kt와 2연전을 마치고 16~17일에는 홈에서 SSG와 정면 승부에 나설 예정이다. 가을야구 티켓이 걸린 5위 자리도 넘볼 수 있다.

광주와 창원에서는 더블헤더 경기가 열린다. 15일 KIA 타이거즈와 롯데 자이언츠, 17일 NC와 LG가 하루 2경기 맞대결을 벌인다.

그러나 태풍 찬투가 15~16일 남부지방에 많은 비를 뿌릴 수 있다는 예보가 있다. 연합뉴스

13일(한국시간) 열린 MLB 토론토와 볼티모어의 경기에서 토론토의 투수 스티븐 매츠가 투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류현진 가을잔치 초대 받을까

토론토, 볼티모어에 22-7 대승
AL 와일드카드 1위 자리 꿰차

류현진(34)의 소속팀인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타선의 힘으로 볼티모어 오리올스를 대파하고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아메리칸리그(AL) 와일드카드 순위 1위 자리를 꿰찼다.

토론토는 13일(한국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오리올 파크 앳 캠든야즈에서 열린 볼티모어전에서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의 44호 홈런포를 포함해 장단 19안타(5홈런)를 쏟아내며 22-7로 승리했다.

3연승을 기록한 토론토는 시카고 화이트삭스에 1-2로 패한 보스턴 레드삭스, 뉴욕 메츠에 6-7로 패한 뉴욕 양키스를 제치고 AL 와일드카드 1위 자리에 올랐다.

올 시즌 MLB 포스트시즌은 지구별 1위 팀과 1위를 제외한 리그 나머지 팀 중 승률이 높은 2개 팀이 와일드카드로 진출한다.

불과 지난달까지 AL 와일드카드 4위에 처져있던 토론토는 최근 10경기에서 9승 1패를 기록하는 등 무서운 기세로 보스턴과 양키스 추격에 성공했다. 토론토는 현재 순위를 지키면 지난 시즌에 이어 두 시즌 연속 가을잔치에 초대받는다.

류현진도 4년 연속 포스트시즌 무대를 밟을 수 있다. 연합뉴스

여자 단식에서 우승한 2002년생 라두카누

남자 단식에서 우승한 1996년생 메드베데프. 연합뉴스

젊은 피 전성시대… 세대교체 신호탄

2021 US오픈 테니스 대회
메드베데프·라두카누 우승

20201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로 열린 US오픈 테니스 대회가 다닐 메드베데프(2위·러시아)와 에마 라두카누(150위·영국)가 우승하면서 새로운 세대의 등장에 팬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먼저 남자 단식에서 우승한 메드베데프는 현역 20대 선수로는 지난해 US오픈 도미니크 팀(6위·오스트리아)에 이어 두 번째로 메이저 왕좌에 올랐다. 1996년생 메드베데프는 결승에서 올해 앞서 열린 호주오픈, 프랑스오픈, 윔블던을 석권한 조코비치를 3-0(6-4 6-4 6-4)으로 완파해 '차세대 기수' 가운데 맨 앞자리를 확보했다.

'차세대 빅3'로 꼽히는 메드베데프, 스테파노스 치치파스(3위·그리스), 츠베레프 가운데 가장 먼저 메이저 타이틀을 따낸 메드메데프는 최근 성장세가 두드러진 선수다.

198㎝ 장신에서 나오는 서브가 기본적으로 강한 편인데다 코스 공략 등 효율성이 뛰어나고, 베이스라인을 지키며 벌이는 스트로크 대결이나 수비 능력이 특출하다는 평이다.

이번 대회 결승에서 팬들이 일방적으로 조코비치를 응원하는 가운데서도 별로 흔들리지 않는 정신력도 강점으로 꼽힌다.

세리나 윌리엄스(미국)가 2017년 내리막으로 접어들면서 '춘추 전국 시대'인 여자부는 이번 US오픈에서 2002년생들인 라두카누와 레일라 페르난데스(73위·캐나다)가 결승전을 벌일 만큼 평균 나이가 어려졌다.

페르난데스와 3회전과 4강에서 만난 오사카 나오미(일본), 아리나 사발렌카(벨라루스)도 각각 1997년, 1998년생으로 젊은 선수들이지만 페르난데스와 마주 서는 바람에 엄청난 '베테랑'으로 느껴질 정도였다. 연합뉴스

K리그 vs J리그… 한·일 자존심 대결

14~15일 ACL 16강 단판 승부
울산·전북·대구·포항 출격

'디펜딩 챔피언'이자 K리그1 선두를 달리는 울산 현대가 일본 프로축구 J리그 1위 가와사키 프론탈레와 2021 아시아축구연맹(AFC)챔피언스리그(ACL) 16강전에서 '한일 자존심 싸움'을 벌인다.

울산은 14일 오후 8시 울산 문수구장에서 가와사키와 ACL 16강 단판 승부에 나선다.

이번 대결은 양국 프로축구 정규리그 1위 팀 간 맞대결로 팬들의 관심을 끈다. 울산은 28라운드까지 진행된 K리그1에서 승점 55로 2위 전북 현대(승점 51)를 승점 4점 차로 앞서며 1위 자리를 지키고 있고, 나가사키(승점 66)도 J리그에서 2위 요코하마 마리노스(승점 65)와 박빙의 1위 싸움을 치르고 있다.

울산은 지난해 AFC 챔피언스리그 우승팀인 만큼 올해도 정규리그와 AFC 챔피언스리그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각오여서 총력전을 펼칠 예정이다.

대구FC도 14일 오후 6시 일본 나고야 도요타 스타디움에서 나고야 그램퍼스와 ACL 16강 원정에 나선다.

조 2위로 16강에 오른 대구는 ACL 조별리그 당시 도쿄올림픽에 차출됐던 공격수 정승원과 수비수 정태욱이 합류하고, 외국인 공격수 라마스가 힘을 보태며 전력 상승한 상태다. 여기에 기존 공격 핵심인 세징야와 에드가와 최근 득점력이 살아나면서 나고야 원정 승리를 다짐하고 있다.

15일에는 전북과 포항 스틸러스가 16강전을 이어간다.

5년 만에 ACL 정상 탈환을 노리는 전북은 15일 오후 5시 30분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빠툼 유나이티드(태국)와 16강 대결을 펼친다.

전북은 조별리그를 무패(5승 1무)로 통과하며 16강에서 동남아 팀으로는 유일하게 조별리그를 통과한 빠툼을 만나게 됐다.

포항은 15일 오후 6시 일본 오사카의 나가이 스타디움에서 세레소 오사카와 16강 원정에 나선다.

포항은 ACL 조별리그 최고 왼쪽 수비수로 뽑힌 강상우와 동아시아 권역 선수 가운데 가장 많은 470개의 패스를 전달한 미드필더 신진호가 핵심 플레이어로 손꼽힌다.

여기에 페널티킥 선방 능력이 좋은 골키퍼 강현무와 세레소 오사카의 '국가대표골키퍼' 김진현의 선방 대결도 눈에 띈다. 연합뉴스

취 축 임
CONGRATULATIONS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

박 희 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밀양박씨 청재공파 제주도종친회
회 장 박 명 호 외 종친 일동

취 축 득
CONGRATULATIONS

제주대학교 교육학박사

김 정 아
(김녕초 교사)
(시부모 : 이창경 · 홍춘선)
(남편 : 이승훈(제주도청 근무))

제주대학교 교육학박사 학위 취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가 족 일 동

취 축 득
CONGRATULATIONS

서울대학교 공학박사

김 성 수
父 : 김용섭(한국전력 제주본부) · 母 : 김신자(남광초)

서울대학교 공학박사 학위 취득과
삼성전자 연구원 입사를 축하하면서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외사촌 일동

선 축 정
CONGRATULATIONS

UN SDGs 글로벌 지속가능 리더 선정 (2년연속)

강 태 선
비와이엔블랙야크 회장
(본 공익사단법인 지도위원)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지위기구
UN SDGs 협회가 발표한 '2021 글로벌 지속가능
리더·기업 100 리스트' 중 '전 세계 가장 지속가능한
사회 환경 리더 20인'에 강태선 회장 선정됨을
축하드리며 더 큰 일들을 성취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공익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지원협의회
회 장 고 관 용 외 회원일동